

후원안내



후원미사 안내*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2021년 1월 후원미사는 18일에 봉헌합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 위해 후원회원과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이주사목위원회 사제, 수도자들은 후원회원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문의 / 02.924.9970~1

* 새로운 후원 가족을 환영합니다!

김태은 브리짓다님께서 후원 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11월 후원회원 후원금 사용 내역서*

수입내역

수입 총액	15,287,280
-------	------------

지출내역

항목	지출	세부내역		
단체찬조비	베들레헴 어린이집	5,200,000	인건비, 주부식비, 교육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베다니아의 집	2,0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보수공사비 등	
	가정폭력 이주여성 시설	1,225,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행사비 등	
	마고네 지역아동센터	500,000	간식비, 교육비 등	
	사랑의 집	1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몽골공동체	200,000	제전비 등	
	남미공동체	300,000	제전비 등	
	중국공동체	100,000	의료비 등	
	인도네시아공동체	100,000	제전비 등	
	상호문화센터	700,000	한글반 외 운영 프로그램 비용 등	
	소 계	9,725,000		
	지원비	노동사목회관	2,400,000	시설유지비, 수도광열비, 장기수선충당금 등
	운영비	이주사목위원회	3,162,280	운영비(행사비, 우편비 등) 지출 및 예치

지출 총액	15,287,280
-------	------------

후원계좌 안내*

우리은행 454-006742-13-007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국민은행 093-01-0297-691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펴낸날 2020. 12. 21. 펴낸곳 이주사목위원회 펴낸이 이광휘 주소 (우)02872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95 노동사목회관 4층 이주사목위원회
 전화 (02)924-9970~1 팩스 (02)924-9972 이메일 migrant@catholic.or.kr 홈페이지 www.seoulmigrant.net

신부님 글

"그동안 베풀어 주신 배려와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육 간에 주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얼마 전 저희 위원회의 한 구성원들로부터 받은 카드의 내용입니다. 별로 잘 한 것도 없어 부끄럽지만 감사하게도 매년 받게 되는 카드입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며 저도 여러분에게 감사와 사랑의 편지를 올려봅니다.



〈사랑하고 늘 감사드리고 후원회원분들께〉

2019년 9월, 가난한 이들 곁에 늘 함께 할 수 있겠다는 반가움으로 위원회 소임을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1년의 시간은 비록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사목에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인, 이주민들을 알아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들에 대한 사랑'은 사목자들이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주사목을 시작하며 그들을 먼저 사랑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사랑하는 분들이 더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식당에서, 거리 등에서 저와 다른 모습, 언어, 피부색의 외국인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들이 어떠한 분들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고국과 가족들을 떠나 세상 속에서 차별과 편견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이라는 것, 빈곤과 폭력과 박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떠난 난민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과 교황님의 권고에서처럼, 그들의 얼굴에서 굶주리시고, 목말라하시며, 헐벗으시고, 병드시고, 나그네이시며, 감옥에 갇히신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어야 그들의 '좋은이웃'이 될 수 있겠다는 사실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마태 25,31-46 참조).

지난 9월, 여름 긴 장마와 태풍이 지난 후 담당 주교님을 뵈고 보고드릴 때의 일입니다. 주교님께서 어떤 잡지에 나온 이주민과 관련된 기사를 알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순간 등에서 땀이 흘러 내렸습니다. 당연히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기사 내용은 수해로 피해를 입은 이주 노동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경기도 이천 농장에서 일하던 농촌의 이주노동자들이 수해로 인해 그들의 보금자리가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고단한 몸이 쉬는 곳은 '비닐하우스'였다고 합니다. 농장의 다른 비닐하우스와 함께 그들의 집도 고스란히 물이 차고 날아가는 수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또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 가운데 58.1%가 가건물(조립식 패널, 컨테이너 등) 혹은 작업장 부속 공간에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이주민들의 이러한 열악한 주거 환경에 대해 무지하였던 것입니다. 이주민들에 대한 저의 사랑과 관심이 아직 멀었구나 생각하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후원회원 여러분,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정성껏 우리 이주민들을 위해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주민들은 더 힘겨운 시기였기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의 손길과 온정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2021년 새해에는 더 많이 우리 이주민들을 사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성어린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 이주민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은총과 복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이광휘 베드로 신부

공동체 소식

베트남 공동체 소식*

지난 11월 15일에는 베트남 순교자 대축일(11월 24일) 경축 이동 미사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베트남 신자 6명이 견진성사를 받는 기쁨의 시간도 함께 했습니다. 미사 집전은 유경춘 주교님(사회사목담당 교구장 대리), 하오 세례자요한 신부님(베트남 담당), 이광희 베드로 신부님(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께서 해주셨습니다. 타국에서 받는 성사의 은총은 남다르고 뜻 깊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참된 자녀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여섯 분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더욱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 어린이집 소식*



(생일을 축하합니다.)

위원회 소식*

노동·이주사목의 선구자 고(故) 도요안 신부(1937~2010) 선종 10주기 추모미사가 지난 달 22일 오후 3시에 노동사목회관에서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심포지엄은 취소되고 노동사목회관의 소임 사제들과 일부 직원만 추모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머나먼 낯선 타지에서 가난하고 헐벗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도 신부님의 생애는 사회적 약자, 이주민,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해 노력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저희 위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하고 그 사명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공지사항 기부금영수증 안내*

2020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입금하신 후원금을 확인하여 기부금영수증을 2021년 1월 셋째 주에 일반우편으로 일괄 발송할 예정입니다. 2020년 안에 기부금영수증을 받으시려는 분이나 우편물 수령 주소가 변경된 분들은 이주사목위원회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02-924-9970/1)

연재 기획 고선정 자매님 연재글*

저희 위원회의 후원 회원이면서 작가로 활동 중이신 고선정 자매님께서 직접 체험하신 스리랑카 문화와 이주민에 관한 글을 8월부터 연재해주고 계시며 이번 달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와 함께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카타라가마로 가는 길의 사원

스리랑카의 7월과 8월은 축제의 불빛으로 연중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때입니다. 설날을 맞는 4월(스리랑카의 설날은 4월 14일)에도, 부처님 오신 날이 있는 5월에도 스리랑카 사원들이 그보다 더 많은 전구에 불을 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캔디에서 열리는 7월의 '에살라 페라헤라(축제)'를 시작으로 8월의 '카타라가마 축제'와 '시니가마 축제'가 남쪽 도시 곳곳에서 2주 간격으로 잇달아 열려 실론섬 전체가 성탄의 밤처럼 흥성거립니다.

축제는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원 안에서 경건하게 행해지는 축제인 만큼 먹고 마시는 일반적 개념의 어느 축제들에 비교할 바도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카타라가마의 축제를 잠깐 소개해볼까 합니다.

카타라가마는 스리랑카 동남부에 있는 한적하고 아담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축제 무렵엔 열흘 전부터 전국에서 몰려든 수많은 신도로 도시가 문전성시를 이루는데, 신도 중에는 스리랑카 북단에서부터 한 달여를 걸어 내려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길 위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발에는 오직 두 개의 끈이 매달린 슬리퍼를 신고 말합니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차림으로 짙게는 사나흘에서 길게는 한 달 동안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는 순례를 자청하는 것은, 길의 끝에서 만날 카타라가마 신(힌두교 신 시바의 둘째 아들로, 카타라가마라는 지명도 이 신의 이름에서 비롯됨)의 영험함에 대한 철석 같은 믿음 때문입니다. 순례길 마지막엔 사원 입구에 가로놓인 매닉강에 몸을 담그고 길에서 뒹쓴 먼지와 땀을 씻어냅니다. 물론 마음속 때도 벗겨 내겠죠. 그리고는 사원 안에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기도에 남은 힘을 쏟아붓습니다.

저도 지난 11월 초, 늦가을의 풍경을 부여잡고 2박 3일간 나 홀로 도보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칠곡 왜관의 가실 성당을 기점으로 팔공산 자락의 한티재까지 45.6킬로미터를 잇는 '한티 가는 길'로 명명된 순례길. 나를 돌아보고 비우고 용서하고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며, 들판을 지나 몇 개의 산봉우리를 넘고 수 개의 저수지를 만났습니다. 3코스의 어느 산등성이에서는 셋노란 단풍을 매단 순백의 자작나무숲을 지나쳤고, 금낙정에 앉아 멀리 금호강과 낙동강의 강줄기에 반사된 햇빛에 부신 눈을 비비기도 했습니다. 4코스 끝자락, 국화가 해사하게 피어있던 원당 공소의 작은 마당도 노랗게 가슴속에 새겨두었습니다.

한티재에 도착하니 일찌감치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가야산의 능선이 노을 속에 자태를 드러내고 은빛 억새밭이 고요히 저녁 찬송을 흘러보내는 중에 감사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숙소나 교통편 등에 대한 준비도 없이 불쑥 떠난 길에도 안전히 허락된 잠자리, 식당 한 군데 들르지 않았어도 배를 불러준 식탁. 모두 곳곳에서 만난 신자들과 성직자들의 자애로운 환대와 배려 덕분이었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하느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사랑의 계획 한가운데에 서는 뜻밖의 영광을 누리 것입니다.'

그러나 순례길에 받은 가장 큰 은총은 초반에 반복한 실수 자체였습니다. 1코스를 걸으며 나무에 묶인 길안내 리본을 놓치고는 가던 길을 몇 번이나 되돌아셔야 했던지요. 한티재에 도달해 '리본이 하느님의 분신이야'라는 오토 신부님의 호탕한 말씀을 듣고서야 그것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순간순간 놓쳤던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었음을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위태로웠으나 위대했던 2020년이 저물어갑니다. 저는 지금 카타라가마로 가던 스리랑카인들이 길 위에 짙은 소망의 발자국처럼 한티로 가는 길 위에서 남겨온 도장과 메모들로 빼곡한 '한티 가는 길' 스탬프 북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겨울이 무사히 지나고 2021년 희년의 봄이 돌아오면 아무래도 봄꽃 만발한 '한티야고(한티 가는 길의 애칭)'로 다시 한번 하느님의 말씀을 찾아 떠나게 될 듯합니다. 영원히 길을 찾는 하느님의 나그네로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말미죠.